

경기 만큼 재밌는 KIA 외야 경쟁



‘대세’ 노수광



‘반전’ 윤정우

‘호랑이 군단’의 외야 경쟁 2막이 열렸다. 올 시즌 선발 고민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KIA지만 행복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격전지이다. 부상과 부진에도 흔들림 없는 외야가 올 시즌 KIA 김기태 감독을 웃게 하고 있다.

김주찬·김호령이 전반기 외야의 질주를 이끌었다면 후반기 경쟁은 ‘신바람 듀오’ 노수광·윤정우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반짝 질주로 눈도장을 찍었던 노수광은 후반기 들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신감 있는 타격을 선보이면서 주춤한 김호령의 빈 틈을 매워주고 있다.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이는 윤정우였다. 타고난 펀치 능력에 빠른 발을 갖추고 있는 만큼 내심 기대를 했던 윤정우지만 전반기에는 이렇다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가장 자신있게 어필할 수 있는 주루에서도 아찔한 실수를 하기도 하는 등 올 시즌 외야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았지만 윤정우의 8월이 뜨겁다.

지난 5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좌익

타격감 증만 외야진 새바람 세밀한 수비 풀어야 할 숙제

수 겸 8번 타자로 나와 3안타를 때린 윤정우는 다음 경기에서도 3개의 안타를 만들었다. 프로에 데뷔했던 2011년 그리고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LG로 이적했던 2012년 두 시즌에 기록한 안타 3개가 전부였던 윤정우에게는 놀라운 반전이었다. 9일 두산전까지 8월 경기에서 15타수10안타로 0.667의 타율을 기록한 그는 3타점 6득점도 올렸다.

윤정우는 “공이 잘 보이고 있다.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빗맞은 타구가 안타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타격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새롭게 외야 경쟁에 불을 지피기는 했지만 아직은 ‘거친’ 플레이가 아쉬운 윤정우다. 경험이 더해지면 윤정우가 일으키고 있는 외야의 새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정우는 “수비가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노력을 하겠다. 주루는 자신 있는데 너무 깊숙하게 리드를 하는 등 좋지 못한 모습도 있었다”며 더욱 세밀한 플레이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7일 김주찬에 이어 9일 신종길에 엔트리에 재등록되면서 KIA는 김호령, 노수광, 윤정우 등 10개 구단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외야를 구성했다. 여기에 파워 라인업을 위해 외야로 배치할 자원들도 있다. 수비의 세밀함은 떨어지지만 나치완과 함께 김주찬·서동욱이 올 시즌 외야 수로도 역할을 맡고 있다.

퓨처스 무대에서 칼을 갈고 있는 외야 자원들도 풍성하다. 올 시즌 1군 무대를 다녀갔던 외야 자원으로는 ‘공격형’ 김다원·오준혁, ‘베테랑’ 김원섭, ‘수비형’ 이진형, 내·외야를 겸하는 고영우·최원준이 있다.

뜨거운 자리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탄탄한 외야가 KIA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자배구, 아르헨 잡고 8강 굳히기

오늘 오전 8시30분 대결

리우 올림픽에서 40년 만에 메달 도전에 나선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3차전 상대 아르헨티나에 필승의 각오로 맞섰다.

한국(세계 랭킹 9위)은 9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러시아(4위)에 세트 스코어 1-3으로 패했다. 김연경(타키 페네르바체), 양효진(현대건설)의 분전과 끈끈한 수비 조직력으로 한 세트를 만회했으나 우리보다 평균 6cm가 큰 러시아의 높이를 당해내지 못했다. 지난 6일 첫판인 한·일전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한국은 이로써 A조 조별예선 전적 1승 1패를 기록했다.

6개 팀씩 두 개조로 편성된 이번 대회에서는 각 조 4위까지 8강에 진출한다. 대전 규정을 보면 각 조 1위팀은 다른 조의 4위 팀과 8강전을 치르고, 각

조 2~3위는 다른 조 2~3위와 추첨을 통해 8강 상대를 정하도록 했다.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브라질과 러시아가 1, 2위를 다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A조 조별예선을 3위로 마치는 것이 최선이다. 물론 B조에서 이번이 속출하고 있어 유불리를 따져 봐야 하지만 가급적 B조 1위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또 8강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11일 오전 8시30분 리우 마라카낭지뉴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잡아야 한다.

아르헨티나(12위)는 A조에서 카메룬(21위)과 함께 최악체로 꼽힌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6전 전승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가 앞서 러시아에 한 세트도 못 따내고 무기력하게 무너졌지만, 한국은 러시아와 대등한 대결을 펼쳤다는 점도 한국의 우세를 점치게 한다.

이정철 감독은 러시아전 패배 이후 “비록 졌지만, 대표팀이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다”며 “희망을 봤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전에 대해 “잔물 처리 등 작은 실수를 줄이고 집중력만 높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를 넘어 8강 이후를 내다본다면 김연경과 짝을 이룰 날에 공격수를 찾아내는 것이 한국의 시급한 과제다. 러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주포 김연경을 집중적으로 봉쇄했다. 김연경에게는 190cm가 넘는 장신 블로커 3명이 출몰 따라다녔다. 김연경의 공격 패턴인 김희진(IBK기업은행)과 이재영(흥국생명)이 나란히 7점에 그쳐 두 선수에게 수비수를 붙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르헨티나전에서 김연경을 뒷받침할 공격수를 찾기 위한 실험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근대5종팀 ‘최강 전력’

실업연맹회장배 대회 2관왕

광주시근대5종연맹(회장 김영근)이 전국 최강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광주시청 근대5종팀이 최근 해남에서 열린 ‘제3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승마 종목은 4종경기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광주시청은 국가대표 출신인 이현웅이 합계점수 1133점을 때내며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시 국가대표 출신인 이종협이 그 뒤를 이어 1122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에서도 금빛 질주가 이어졌다. 윤일모, 이종협, 이현웅, 황우진 등 전현직 국가대표들로 구성된 광주시청은

3357점을 합작하며 2위 전남도청(3318점)과 3위 경산시청(3146점)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 여자일반부의 송학건설은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다. 남자일반부 계주경기에서는 국가대표 송호준과 이현웅이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국제연맹 룰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혼성계주에서도 윤일모와 이우리(송학건설)가 은메달을 가져왔다.

광주시청은 시즌 첫 대회였던 회장배 우승을 시작으로 금메달 행진을 하고 있다. 앞으로 선수권대회와 전국체전에서 금빛 소식을 전하면 올 시즌 전관왕 석권(총 5개 대회)이라는 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광주시청 김상완 감독은 “선수들 컨디



광주시청 이종협(왼쪽부터), 황우진, 이현웅, 윤일모. <광주시체육회 제공>

션이 최고조에 달했다. 올 한해 전관왕 석권이 최종 목표인데, 선수들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남은 대회에서도 우승하여 꼭 사고 한번 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8회 한국학생연맹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를 겸해 진행된 경기에서는 광주체고가 남자고등부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2관왕에 올랐다. 여자고등부와 광주체육중도 메달을 따내며 광주근대5종의 저력을 과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성대-동아대·한양대-단국대, 내일 16강전

대통령기 전국야구

제50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16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안하대가 10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대통령기 1회전에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를 9-6으로 꺾으며 16강에 올랐다.

12일 오전 9시30분 경성대와 동아대가 첫 8강 진출팀 자리를 놓고 대결을 벌인다. 부전승으로 16강에 오른 건국대는 개

막전에서 세계사이버대를 제압한 세한대와 만난다. 한양대와 단국대도 같은 날 16강전을 치른다.

13일에는 경희대를 꺾은 송원대가 안방에서 제주 국제대를 상대한다. ‘디펜딩 챔피언’ 성균관대는 연세대와 16강전을 치르고, 고려대는 경남대와 대결한다.

14일에는 지역 출신 사령탑들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홍익대 장재근 감독과 원광대 김준환

감독이 16강전에서 지역 대결을 벌이고, 8강 마지막 티켓을 놓고 동국대 이근철 감독과 인하대 허세환 감독이 격돌한다.

한편 31개교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일 개막한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는 오는 18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야구연맹(회장 안계장)과 광주광역시야구협회(회장 나훈)가 주관하며 IP-TV 채널인 BS스포츠를 통해 결승전과 준결승 2경기 등 총 3경기가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세한 경기일정과 결과는 한국대학야구연맹 홈페이지(kubf-2012.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

YHB 이동식 에어컨

조리작업장 / 주방 / 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PTB7000



PTB5000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고온 및 습기에 강력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
특별가 공급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핑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응접장,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산서버룸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ECO / 주식회사YHB / (주)YHB 토탈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워 12차 501호 ☎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공 장: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4(오선동) ☎ 062-952-6633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재동) ☎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